

①9 19세 미만 관극 불가

#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남자

불.편.한.연.극



원작: 스캇 펙    대본구성: 이혼주    재구성/연출: 호민

출연: 유상훈, 구민주, 김희지, 호민

# 시간! <파. 못. 남> 공연을 앞두고

연출 호 민

어제 까지만 해도 극장 앞에 버티고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나뭇잎처럼 한껏 가을의 정취를 뽐어내는 듯 하더니만, 웬걸? 오늘 아침 바라본 나무가지엔 앙상한 가지만이 며칠 굵은 방랑노숙자의 초췌한 얼굴 인양,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험한 모양을 드러내며 벌벌 떨고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리풍경, 지나는 사람들의 옷 두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비로소 시간이 흘렀음을 감지해 낸다. 무엇이 그리도 바빠야했던지, 유독 올 한해는 도데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고 지낸 듯 하다.

연초부터 의욕차게 스타트한 '미리내'소극장과 '아센'의 공연 일정은 가히 살인을 방불케할 정도로 짝찬 스케줄로 의욕이 의무감으로 바뀌었고, 의무감은 여유없는 인내를 요구하며, 바뀌어 가는 계절의 흐름을 뒤돌아 볼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주에 다시 '미리내'에서 올려질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남자>의 공연을 목전에 두고 문득 올해 일정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생각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 갖은 흥, 悲가 교차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몸부림치며 한 차례의 풍량이 휩쓸고 지나간 듯이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파. 못. 남>을 통해 관객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자 한다.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남자> 누군가 말한대로 "제목 한 번 죽인다". 그 제목 한 번 죽이는 이 공연은 제목의 뉘앙스에서 풍겨지는 것처럼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코믹 드라마가 아니다.

'19세 미만 관극 불가' 혹은 '불편한 연극'이라 지칭한 카피만큼이나 진지(?)한 연극이다. 요즘의 연극적 대세에 역행하는 연극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요상한 연극도 아니며, 욕설이 난무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부부의 조금은 기이한 동거를 통해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놓였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단편을 연극이라는 무대를 통해 재현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따라서 <파. 못. 남>은 관객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연극이다.

어떤 이들에게 이 공연은 매우 재미있게 혹은 의미심장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혹은 지루한 공연이 될 수도 있겠다.

결과에 대한 평가야 어떠한 '아센'은 이번 공연으로 만나는 관객들에게 외형으로 만들어지는 연극적 즐거움을 주기 보다는 연극이라는 이름을 통해 정신적 의미론을 교류해 보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때문일까?

<파. 못. 남>은 그 시작부터 무대에 오르기 까지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연 일정이 취소 되기도 했었고, 배우가 바뀌기를 수 차례, 다시 날짜를 변경해가며 비로소 12월 5일 부터 관객과 만나게 된다. 심한 풍파를 겪으며 재탄생의 무대로 올려지는 만큼 <파. 못. 남>에 대한 팀들의 애정과 단합 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해 본다.

이제 겨우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한 즈음, 벌써 한 장의 달력만을 남긴 채, 우리는 떠난다. 파리 한 마리라도 죽이기 위하여....

본 공연을 위하여 음지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몇몇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비록 지면에 실명을 거론 할 수는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게끔 애쓰겠습니다.

또한, 항상 곁에 계시면서 신뢰와 애정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영진인쇄출판의 '정영도'사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영도 행님 첫공, 막공 얼굴보고 씨주 한 잔 껌시데이!"

또한, <파. 못. 남>의 어려운 탄생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믿음을 주고 함께하신 우리 공연 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대들이 보여준 공연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내일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날이 행복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사, 해설자 / 유 상 흘

장고개 연습실 대표  
제24회 부산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출연 <내마> <사람의 아들> <칠산리> <멕베드>  
<리어왕> <자하철 1호선> <느낌 극락같은> 등  
연출 <무영탑> <생일 파티> <고도를 기다리며>  
극작 <도불유희> <세익스피어의 연인들> 등

'무의식적 문제유발자'와 '무의식적 문제유발원인제공자'에 관한 상대성과 그들이 지니게 되는 억압과 폭력,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필요악'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건사례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흑백논리 이면에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종류의 일반원리가 존재합니다. 절대적 '필요악'에 의하여! 우리는 혹,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어떤 유형속의 파트너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속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불특정 다수의 '문제유발자'입니까? 아니면 문제유발자의 부류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의 '문제유발 원인제공자'입니까? 혹은, 이 두 가지 다 인가요? 범인들인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이 영킨 실타래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일수록 더욱 더! 비록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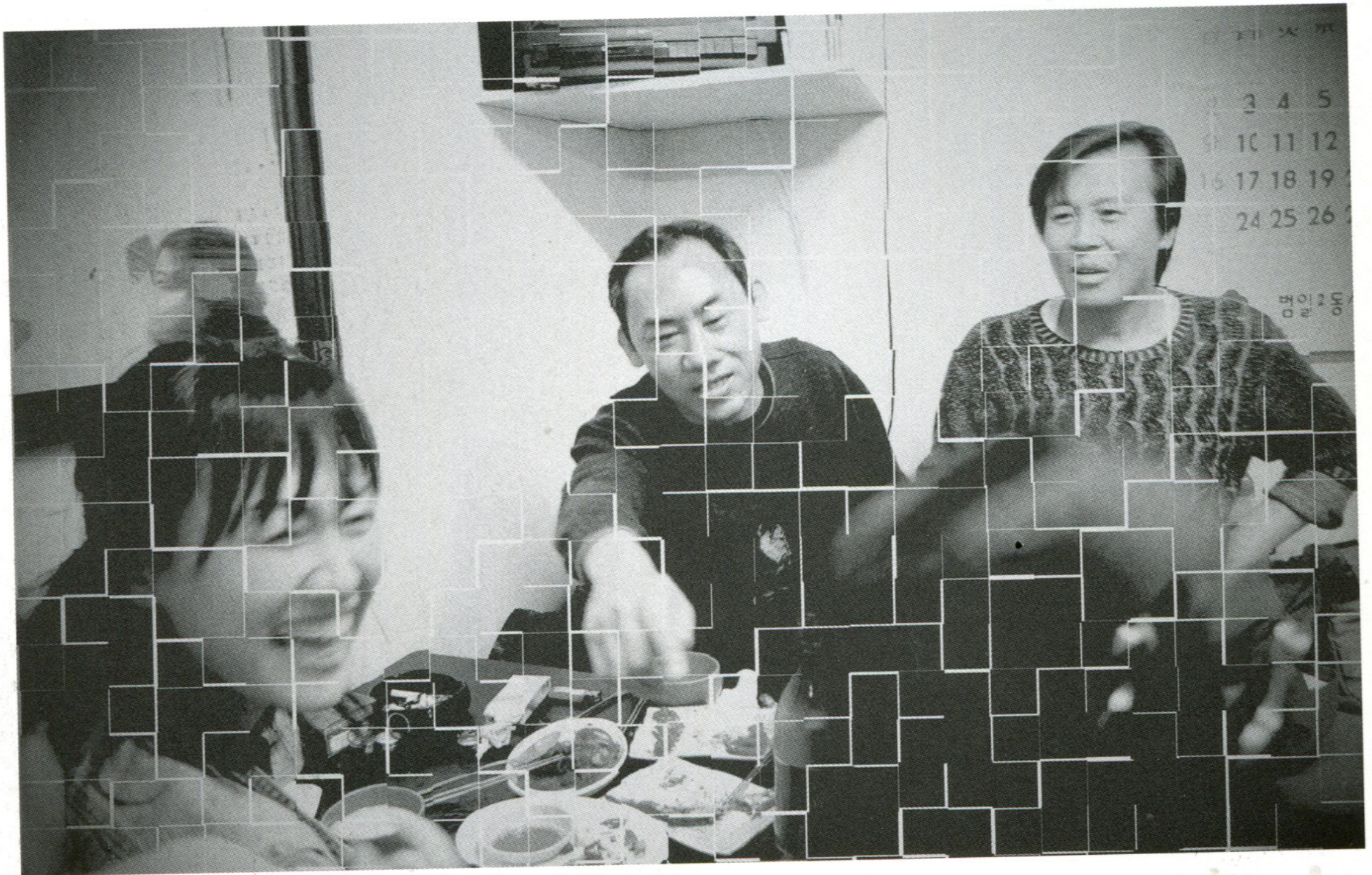
## 아내 / 구 민 주

미리내 소극장 대표  
제1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여자연기상 수상  
제19회 부산연극제 우수여자연기상 수상

출연 <영순아 어디가니> <과부들의 축제> <언덕을 넘어서가자>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러브러브 베베>  
<돌이서 셋이서 혼자서> <웨딩드레스> <양파>  
<그 여자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날 보러와요>  
<묘지클럽> <여보세요 누구세요> <마담M의 초상> 등

선생님은 사과와 굴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와 제 남편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과와 굴 사이인 걸요. 하지만 누가 사과이고? 누가 굴인지는 선생님도 모르실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사과인가요? 굴인가요? 껍질이 오돌도돌한가요? 매끄러운가요. 아니면 밤 껍질처럼 두꺼울 수도 있겠죠? 그래요 저는 껍질이 두꺼운가 봐요. 하지만 절 잡아먹으려 드는 사람들한테는 얼굴이 두꺼워져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사과를 어떻게 깎고 굴껍질을 어떻게 벗기는지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긴 세상 모든 게 모두 거기서 끝나게 돼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늦가을 비라 해야하나, 초겨울 비라 해야 하나  
 하루종일 성실하게 내리는 비를 오랜만에 내 방 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바람이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무던히도 흔들어대더라  
 쪽 늘어진 흔들거리는 가지가 여시같은 여자팔에 질질 끌려가는 우유부단한 남자가 보여 별로더군  
 차를 타고 극장으로 오던 차안에서 바라본 전경답경치는 실로 오랜만에 많은 것들을 그리워하게 만들더라  
 비바람에 떨어져 튀기는 노오란 은행잎은 정말 장관이었음  
 라디오에선 연신 비를 떠올리게 만들며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멘트들을 날리고 있었으며.....  
 아마 오늘 파전에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많겠지  
 불어대는 바람과 날리는 은행잎과 싸늘한 기운에 종종걸음치는 사람들을 창너머로 바라보며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누르며 안부문자 날리고픈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군...  
 누군가 나같은 마음에 나같은 지냈을 이도 있을테지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랑감소?'란 희곡이 있지만  
 날씨와 사랑의 감정은 아마도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관계인지도 모른다  
 가끔은 비를 이유삼아 오래전 이들도 떠올리고 때론 비때문에 미친척도 해보고.....  
 아직은 그리고 싶은 내 마음이 비단 내 마음만 이랴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이 비때문에 그리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바라며  
 그런 아련한 전경이길 바라며.....



"필요악을 정복하는 유일한 궁극적인 방법은  
 그 악이 인생을 자발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인간 안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질식 당해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 스킷 펙



## 다역 / 김희지

극단아센 단원

출연 <과부들의 축제> <러브러브 베베>  
<로망스2> <돌아서 셋이서 혼자서> 등

니는 니 주제도 모르나? 다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뺨으랬다고. 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이대기는 들이대노. 니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니 짝이라고 생각하나, 꿈도 꾸지마라. 나는 니가 우리 집 돈 때문에 환장해서 그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니 까짓게 어떻게 우리아들을 홀코 빨았길래 우리 아들이 니랑 결혼한다고 저리 날뛰는지 몰라도 니랑은 안 된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어른을 치다 보노. 바라바라 뺨데 없는기 배운 것도 없다고, 옛날 말 틀린 거 없제.

## 남편 / 호민

극단아센 대표 . 미리내소극장 상임연출  
제26회 부산연극제 우수 남자연기상 수상

출연 <그 여자 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서울 말뚝이> <날 보러와요> <뱃줄>  
<돌아서서 떠나라> <언덕을 넘어서 가자>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등  
연출 <영순아 어디가니> <과부들의 축제> <양파>  
<돌아서 셋이서 혼자서> <여보세웁 누구세요>  
<마담M의 초상> <묘지클럽> <적과의 이중주>  
<아비가일의 파티> <웨딩드레스> 등

그날 전 기분이 좋았어요. 햇볕도 좋은 날이었죠. 난 아내에게 잘하고 싶고 힘이 센 남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전 아내가 매일같이 말하던 이불을 빨아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울 이불을 꺼내 빨았어요. 물을 많이 받아 거품을 내어 힘껏 밟았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았어요. 아내가 기뻐할 것 같아 더욱 기분이 좋았죠. 아내가 돌아왔어요. 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무거운 이불을 빨았다고 했더니...



원작 : 스캇 펙

대본구성 : 이훈주

재구성/연출 : 호민

기획 : 유진

조명 : 김혜연

음향 : 정혜진

무대제작 : 김동구, 정순원, 김동민

분장 : 이수금

주최/주관 : 미리내 소극장

후원 : 영진인쇄출판

제작 : 극단 아센

## 만든 사람들

